

# 장성군 '도시 명품숲길 조성' 주민 휴식처 제공

황룡강 일원 맨발걷기길 구축 하사마을 1km구간 산책로 조성 세죽장, 신발보관함 시설 마련 철쭉 등 1만6569주 나무 식재

장성군이 '10리 꽃강'으로 유명한 황룡강 일원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자전거 코스 정비와 도시 녹지공간 확보로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숲 명품숲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다채로운 계절꽃이 피어나는 황룡강 인근인 황룡면 봉덕마을에서 하사마을 1km 구간 순환산책로에 최근 맨발걷기길을 만들었다.

표층 토양으로 부드러운 황토를 사용해 초심자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다. 중간부에 '바다모래 코스'도 있어 걷는 즐거움이 크다.

맨발걷기길은 황룡강 상류 지역 황미

르랜드에도 있다. 황룡면보다 먼저 생긴 걷기길로, 수려한 강 풍경을 즐길 수 있어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두 걷기길 모두 세죽장, 신발보관함 등 필요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자전거 코스도 재정비했다. 장성군은 황룡강 자전거길 17km 구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구간엔 꽃, 수수 등으로 아름다운 조경을 꾸몄다.

이밖에 명품숲길도 이목을 끈다. 장성군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및 경관 제공을 위해 '도시숲 명품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장성읍(영천리 1458-30) 일원에 선주목, 철쭉, 남천, 꽃댕강, 꼬리조팝을 식재하고 신규 숲길 1km를 시범 조성했다. 옐로우게이트, 장성나들목, 못재터널, 시목교차로 방면에는 조팝나무, 철쭉 등 1만6569주의 나무를 식재해 도시 속 생활숲을 완성했다.



장성 주민들이 황룡강 일원에 조성된 숲길에서 맨발걷기를 하고 있다. 장성군은 자전거길 정비 등 도시숲 명품 숲길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성군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맑은 공기와 수려한 풍경의 황룡강 등 장성의 환경적 장점을 잘 활용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장성'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 소소한 공생, 어울림장터 내달 1일 영산강 문화공원 일대

담양군과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는 오는 6월1일 영산강 문화공원 일대에서 '소소한 공생, 어울림장터'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민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내 공동체 등 20여개 업체가 판매자로 참여해 수공예품, 먹거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마을 어른들이 직접 쓴 덕담 캡슐 뽑기, 포토 부스 이벤트가 마련돼 있으며 죽녹원 일대와 어우러진 포토 존과 휴식 공간을 조성해 볼거리, 먹을거리, 문화행사 등이 다채롭게 행사장을 채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 내 공동체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사회적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집중 안전점검 안전한바퀴 화순군, 고인돌전통시장서

화순군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집중 안전점검 안전한바퀴 캠페인'을 지난 28일 고인돌전통시장에서 전개했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4월22일 ~ 6월21일)동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자율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실천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및 자율안전점검 등을 홍보했다.

캠페인에서는 내 집은 안전한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스스로 체크하고 실천하는 안전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이다'라는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안전보안관은 지역축제 안전문화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 군민생활안전 보험 홍보 캠페인,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으로 안전이 일상인 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화순=김선중 기자

##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영광군, 휴대폰으로 청취 가능

영광군은 방송 앰프와 스피커를 통한 기존 마을 방송이 난청 지역, 울림 현상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3세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시스템을 구축했고 마을 이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마을 방송은 각 마을의 이장이 휴대폰에 방송을 녹음하면 시스템에 등록된 마을주민들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발신되어 바로 들을 수 있는 체계이다.

전화를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시차를 두고 다시 전화를 걸어 줌으로써 마을 방송의 수신율을 높일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수신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마을방송 대표번호 '350-2100'으로 전화를 걸면 '다시듣기'도 가능하다는 것도 마을방송 사용의 큰 장점이다. 영광=김도윤 기자



화순군이 지난 28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캠페인을 펼쳤다. 군은 이날 안전실천참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자율안전점검 등을 병행해 홍보했다. 화순군 제공

## 담양군 농업인대학, 스마트 토마토반 운영

담양군은 지난 28일 토마토 재배 농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스마트 토마토반'을 개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농업인대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토마토 재배 기술, 스마트 시설 설비 및 환경제어, 기능성 토마토, 선진 농장 견학 등 스마트농업을 활용해 정밀하고 과학적인 토마토 재배 기술 학습을 목적으로 총 20회 100시간의 다양한 전문화된 과정으로 진행된다.

담양군 농업인대학은 2008년부터 1기 죽로차 과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개



담양군이 지난 28일 '제17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스마트 토마토반'을 개강했다. 담양군 제공

과정, 560회에 걸쳐 960명으로 16기생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등에 앞장서며 지역농업의 리더로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

## 나주시,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나선다

### 시민 재산권 보호

나주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15개 지구 경계 확정을 위해 나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

사인 박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사업지구 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경계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문평면 안곡1지구 외 14개 사업지구 경계결정사항(3762필지) 중 지적확정예정 통지에 대한 88건의 토지소유자 의견 접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경계결정사항은 내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다도덕림지구 외 7개 사업지구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업체 화순군, 추가 모집

화순군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화순사랑상품권, 미니파프리카, 타올 세트 등 19개 업체의 26개 품목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기부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제조 및 배송할 수 있는 업체이다. 모집 품목은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공예(산)품 △관광서비스 등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공급업체는 최대 3개 품목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대를 달리해 제안할 수 있다.

답례품 공개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6월12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서류를 준비해 화순군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에 하면 된다.

화순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업체의 안정성, 우수성,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화순=김선중 기자

## 럼피스킨병 예방 백신 접종 화순군, 송아지 1213두 대상

화순군은 올해에도 럼피스킨병 발생 위험을 고려해 송아지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해 타지역 럼피스킨병 발생 시 즉각적인 선제 대응으로 화순군 지역에서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한 바 있다.

접종 대상은 2024년 5월 말 기준 4개월 이상 송아지 1213두에 대해 일제 접종을 시행한다.

백신은 29일부터 농가에 공급하며 50두 이상 전업농은 직접 자가 접종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할 방침이다. 화순=김선중 기자